

# 커리어디자인 11주차 과제

## 의사결정의 순환 과정 단계별 분석

201911019 최현민

저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서버 개발자를 꿈꾸고 있습니다. 제 진로와 관련된 경력을 쌓고자 최근에 인턴십 참여를 계획하여 여러 IT 기업 중에 제 게 가장 도움이 될 기업을 선택하고 지원하는데 있어 의사결정이 필요했습니다.

문제인식으로 제 진로와 가장 관련이 있고 제 커리어에 도움이 될 기업 선정이 있었고 제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서버 개발자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AI, 빅데이터 관련 회사와 백엔드 직무 분야를 위주로 기업을 찾아봤습니다.

대부분의 인턴십 프로그램이 채용연계형 인턴십으로 굳필만 지원이 가능하여 미필인 제가 지원할 수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이 많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제가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은 NC 소프트,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와 스타트업 기업인 메가존 클라우드, 코드잇이 있었습니다.

이번 겨울방학때 스타트업 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고 이번에는 대기업에서 인턴을 하며 더 다양한 경험을 쌓아보고 싶어서 메가존 클라우드와 코드잇은 보류를 했고 제 진로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직무가 NC 소프트 직무보다 더 맞아서 인턴십 기업 1순위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, 2순위는 NC 소프트로 정하고 인턴십에 지원했습니다.

지원한 결과 두 기업 모두 서류전형에 통과하여 이번주에 NC 소프트 면접을 봤고 다음 주에 있을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면접을 준비 중입니다. 두 기업은 제가 전부터 꿈꾸던 기업이고 현재 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원하기 전에는 이번에 말고 다음 기회에 지원해볼까 고민했지만 두 기업을 준비하면서 컴퓨터에 대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면접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배운 좋은 경험이었기 때문에 결과를 떠나서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.

이번 경험을 통해 도전하고 노력하면 결과를 떠나 많은 것을 배우고 실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기로 다짐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번 경험이 제 게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제 꿈에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.